

#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사업' 박차

### 추진위원회 22명 확대 구성·4개 실무위원회 운영 범시민 온오프라인 서명운동·학술세미나 등 추진

광양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본 추진위원회는 광양시 유일한 국보인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을 제자리로 찾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기존 12명의 환수위원회에서 22명의 추진위원회로 확대 구성하고 대외협력, 역사고증, 교육, 홍보 협의 등 총 4개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된다.

이날 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인 김종호 광양문화원장, 박두구 광양YMCA 이사장을 비롯해 사회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자리 찾기 사업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추진되는 제자리 찾기 사업은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홍보 캠페인 전개 ▲우리 문화유산 바로 알기 ▲국가문화유산 기록화 사업 ▲학술세미나 개최 ▲석등 제자리 찾기 시급조사 등이다.

특히 범시민 서명운동은 5만명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서명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광양시청 홈페이지(온라인 서명)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오프라인 서명부 서명)에서 참여할 수 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는 광양시 유일한 국보인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범시민 역량 결집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한 전방위적인 제자리 찾기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김종호 상임위원장은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며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하루속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문화유산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진정성이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다"면서 "시민들에게 문화유산을 바로 알리고 제자

리 찾기 사업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1962년 국보 제103호로 지정된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은 1931년 일제강점기 광양을 떠나, 1932년 경북군 자경전 앞에 이진되고 해방 이후 1959년 경무대, 1960년 덕수궁으로 옮겨졌다. 이후 1986년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정원으로 옮겨 전시되다가 1990년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되어 현재에 이르게 됐다.

광양=조순익 기자

# 순천 '농·어업인 공익수당' 조기 지급

### 오는 22일부터 60만원 '순천사랑상품권' 지급

순천시는 농어업 경영비 증가에 따른 농·어 소득 안정과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조기에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이 가진 공익적·다원적 기능 증진 및 농어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가당 60만원씩 지급된다. 2024년도 지급 대상은 15,488명, 93억 원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오는 11월 29일까지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수당 수령은 오는 22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지역과 도

사동은 마을별 지정된 수령날짜에 맞춰 주소지 농협에서 방문 수령할 수 있다. 도시동 제외 기타 동지역은 5월 3일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5부제를 2주간 시행하고, 5월 7일부터는 출생 연도 관계없이 NF농협은행 순천시지부에서 방문 수령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상반기 일괄 조기 지급을 통해 농·어업인 경영안정과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농·어업인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 보성, 농산어촌 유학 마을 한미음 대회 행사

### 유학 가족간 유대감 강화·지역주민 소통 어울림 자리 마련



보성군은 지난 15일 경북면 전천후계이트볼장에서 보성에 유학 중인 가족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장거 유학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산어촌 유학 마을 한미음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성군 김철우 군수, 보성군의회 임영민 의장, 전라남도 보성교육지원청 권순용 교육장, 유학 가족,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유학생 거주 공간인 신축 조립식(모듈러) 주택 입주 축하 및 한미음 행사 등을 진행했다.

2024년 1학기 보성 농산어촌 유학 가족은 서울, 경기, 대구, 충북 등에서 온 학생 20명, 유치원생 2명, 보호자 15명 총 37명이다. 이들은 관내 4

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

1부 기념행사에서는 개회, 조립식(모듈러) 주택 조성 경과보고, 유학 생활 홍보영상, 환영 인사, 축사 등이 진행됐으며, 2부 한미음 행사는 유학 학부모 및 학생, 지역 학생, 지역주민이 한미음으로 어우러지는 다양한 놀이(레크리에이션)가 이뤄졌다.

보성군은 학생인구 및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 인구 유입을 촉진해 작은 학교를 지키고 농산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를 쌓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을 확보해 경북면과 문덕면에 '농산어촌유학 학생용 주거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보성=장국도 기자

# 순천, 사업용 차량

###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순천시는 시민 불편 해소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5월까지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하는 대형 사업용 차량에 대해 순천 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평소 공동주택단지 주변 이면도로, 공원 인근 등에 대형 사업용 차량의 불법 주차가 빈번해, 사고위험·통행 불편·소음·공해 등의 민원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오전 0시~오전 4시 사이에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화물자동차는 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 과징금 20만원,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야간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2회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불법 밤샘 주차한 사업용 차량 33건을 적발하여 이 중 1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밤샘 주차 사업용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안전 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보성, 벼 병해충 방제 공동방제 신청하세요

보성군은 벼 재배 농업을 대상으로 벼 병해충 집중방제 시기에 약제를 살포해 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이하 방제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주로 발생하는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밀가루 등을 방제하기 위해 총 사업비 6억 7,800만 원이 투입해 공동방제비를 1회 지원한다.

관내 주소를 둔 벼 재배 농가는 오는 5월 1일까지 거주지 소재 관할 읍면 농민상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단가는 1헥타르(ha)당 7만 2천 원이다.

농업기술센터는 벼 병해충 방제를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방제대행권을 배부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농업인들께서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라며 "이번 방제지원사업을 통해 부족한 농촌 인력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 고흥우주항공축제 나로우주센터 견학 참가자 모집 열기 뜨거워

### 1년 중 단 한 번 축제 기간에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추억

고흥군은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 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 기간 중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특별 견학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견학은 1년 중 단 한 번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에서 열리는 고흥우주항공축제 기간 중에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로 4,200명(온라인 예매 2,940명, 축제장 현장 접수 1,260명)만이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예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 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 공식사이트(<https://itt.ly/gohaung>)에서 가능하다.

지난 4월 8일부터 접수해 14일까지 1,901명이 접수했으며, 우리나라 우주의 문을 열어 가는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견학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의 열기가 뜨거운 만큼, 이번 주중에 매진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온라인 예매를 못한 분들과 축제 기간 축제장 방문객들

이 나로우주센터를 탐방할 수 있도록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고 전했다.

한편, 나로우주센터는 세계 13번째 우주센터로 2009년 6월 11일 준공됐으며, 규모는 총 부지 5,379,592㎡, 연 면적 89,001㎡이다.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하반로 490에 위치한 한국 최초의 우주기이다.

주요 시설물은 위성 로켓 발사대, 발사 통제동, 추진기관 시험시설, 조립 시험시설, 추적레이더동, 광학장비동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와 누리호가 발사된 역사적인 현장이다.

고흥=신용원 기자

# 곡성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사업' 최종 선정

### '마천목 장군과 도깨비 설화' 프로그램... 2027년까지 3년 간 국비 지원

곡성군은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추진하는 '내가 만난 첫 번째 국가유산-마천목장군 도깨비를 만나다' 사업이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사업'은 문화재청이 2008년부터 추진한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중 우수사업이나 명예의 전당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사업중 대표사업을 선정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전국에서 운영된 '국가유산 활용사업' 중 최종 10곳이 선정됐고, 그 중 곡성군이 최종 선정되면서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내가 만난 첫 번째 국가유산-마천목장군 도깨비를 만나다'는 보물인 '마천목 좌명공신녹권'과 도깨비 설화를 인형극과 체험을 통해 친숙하게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속으로 우수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문화재청

의 명예의 전당에도 등재된 바 있다.

이번 대표 브랜드 선정됨에 따라 곡성군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국비를 지원 받게 됐고, 홍보책자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등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표 브랜드 선정은 곡성군의 문화콘텐츠의 우수성과 가치를 입증받은 것으로, 2024년에는 더욱 풍성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국민들과 관광객을 맞이 하겠다"고 말했다. /곡성=홍경백 기자

# 순천시 왕조1동 '우리 동네 미술관'으로 늘려주세요

### '마음실음 미니갤러리' 서 주민 작품 전시

순천시 왕조1동은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에 '마음실음 미니갤러리'를 열어 분기별로 주민들의 작품 전시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재활시설인 '순천 더담빌'에 입소하고 있는 아파추어 작가들이 참여했으며, 정서적 치유와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강렬하며,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반려동물과 주변 사물들이 주제가 되어 동사무소 방문 주민들에게 힐링 공간과 문화 체험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더담빌 시설 관계자는 "미술 활동이 입소자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많이 됐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동사무소에 작품이 전시될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왕조1동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



해 재활시설 입소자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작품을 관람하는 주민들에게는 힐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 곡성 5년 연속 '전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 '도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 최우수상 수상 '경경사'

곡성군이 5년 연속 '2024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여기에 '2024년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해 재정인센티브 총 4550만 원을 확보했다.

매년 실시하는 '전라남도 지방세

정 종합평가'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정 전반에 관한 32개의 선정지표를 바탕으로 평가된다. 곡성군은 세외수입 운영과 세수 확충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 평

가'에서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한 최우수상을 수상해 경경사를 누렸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성숙한 납세 의식과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긍정하고 정확한 징수 활동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곡성=홍경백 기자

# 구례, 친환경 포충기로 해충 퇴치 나서

### 5곳 해충 유인기 추가 설치 등 선제적 방역

구례군은 최근 해충 퇴치를 위해 군 전역의 친환경 포충기를 일제 정비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해충의 활발한 초기 활동이 예상됨에 따라 군은 선제적 방역에 나섰다. 16일 밝혔다.

현재 구례군 보건의료원은 포충기 18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례읍 강변길, 문척면 마을회관, 광의면 유산각 등 5개소에 해충 유인기를 추가 설치했다.

해충 유인기는 포충기로도 불리는 물리적 방제기로 방제 효과가 높고 친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치는 해충을

유인하는 빛과 자외선 파장(350nm~400nm)을 이용해 모기, 동양하루살이, 깔따구 등의 날벌레를 유인해 퇴치한다. 유인기 내 1차 팬의 흡입력으로 해충을 빨아들이고 후, 2차 팬으로 해충을 타격해 잔해를 아래로 배출하는 구조다.

또한 군 보건의료원은 기온 상승에 따른 해충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172개 자율방역단과 함께 주거 밀집 지역과 5일시장 물리적 방제기로 방제 효과가 높고 친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치는 해충을

# 광양, 드론 전문가 양성 교육비 50% 지원

### 시민 대상 교육생 모집...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광양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국가자격증(2종) 취득을 통한 실무형 조종능력 양성을 위해 교육비의 50%를 지원하는 '2024년 스마트드론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수행기관 모집과 선정 심의를 거쳐 조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주남다들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교육생 모집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교육 인원은 ▲농업방제 분야 8명 ▲항공촬영 분야 8명 등 총 16명이다.

신청 자격은 2024년 2월 21일 이전부터 광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으면 지역 내 거주기간, 드론

보유 여부 등 별도의 선발기준에 따라 최종 16명의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교육생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드론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 희망자는 스마트드론 전문가 양성과정 홈페이지(<https://gxdone.modoo.at>)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광양무인항공교육원(광양시 광양읍 익신산1길 50, 061-763-2400)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신오희 신산업과장은 "실무형 드론 전문가 양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드론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조순익 기자